

□ 普門寺址 地表調査 □

1. 調査概要

新羅 國都의 鎮山으로서 널리 추앙되었던 狼山과 明活山 사이에 펼쳐져 있는 문화유적은 일찍부터 文化遺蹟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미미하여 自然的, 人爲的으로 重要遺蹟들이 점차 훼손되어 왔음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東國大學博物館이 狼山 주변에 산재해 있는 文化遺蹟에 대한 綜合的인 地表調査를 실시¹⁾하였음은 文化遺蹟 保存을 위한 基礎資料 수집의 큰 업적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調査報告書에 실린 내용이 대체로 狼山자락에서 30m 이내의 遺蹟만 상세히 다루고 있고 狼山과 明活山 사이에 남아 있는 普門寺址를 비롯한 遺蹟址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행히 上記 報告書에 실린 狼山 서남편의 四天王寺址와 望德寺址에 대한 實測圖面과 狼山 東便에 위치한 普門寺址에 대한 目測상의 伽藍配置 狀況과 出土된 遺物을 비교해 볼 때 이들 3寺는 築造年代가 거의 同時代에 세워졌던 것으로 판단되어졌고, 또 慶州文化財研究所가 皇龍寺址 外廓地域에 대한 發掘調査에서 확인한 新羅時代 東西方向道路遺構가 現 경주-포항의 산업도로까지 확인²⁾되어 이 유구가 산업도로를 지나 보문들로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어 狼山 周邊 寺址에 대한 比較研究와 新羅王京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밝히기 위해서는 狼山 東便과 北便 즉, 보문들에 대한 자세한 地表調査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慶州文化財研究所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의 綜合的인 地表調査 計劃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慶州地域內의 廢寺址에 대한 地表調査를 포함시켰고 그 첫 사업으로 普門寺址를 調査하게 된 것이다.

2. 遺蹟의 現狀

慶州시가지에서 普門觀光團地로 가는 국도의 南便에 위치해 있는 普門部落의 앞들(傳金堂들)에 위치한 普門寺址에는 현재 推定金堂址, 塔址 등의 유구가 논가운데 土壇으로 융기되어 있고 幢竿支柱, 石燈地臺石, 石槽 등의 遺物은 文化財로 指定, 保存되어 있어 이 寺址가 新羅時代 당시의 大伽藍이었음을 쉽게 짐작케 하고 있으나 伽藍의 精確한 規模나 配置

1) 東國大慶州캠퍼스 博物館, 1985, 「慶州狼山遺蹟調査」

2) 慶州文化財研究所, 1990, 「'90年報」

狀況 등이 糾明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遺址는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사진 1).

현재 寺址內에는 많은 기와조각과 전돌조각이 흩어져 있는데 日政期에 실시된 朝鮮古蹟 調査時 이들 기와조각 중에서 ‘普門寺’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을 發見하였다고 記錄³⁾하고 있어 이 寺址名이 普門寺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調査內容

調査는 현재 金堂址로 추정되는 곳에 남아 있는 遺構 중 위치 이동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內陣礎石列에서 東西中心軸線과 南北中心軸線을 잡고, 兩中心軸線이 교차되는 지점에 B.M을 設定하여 조사에 필요한 遺構配置圖 등 모든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위치이동이 있어서 遺構配置圖上에 표시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礎石 등의 석조물은 현재의 위치를 遺構配置圖上에 표시하고 個別單位로 實測調査하여 向後 遺構保存에 基礎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면 1).

가. 推定金堂址

金堂址로 추정되는 遺址(이하 金堂址)의 平面形態는 동서 22m, 남북 21.6m의 否定矩形으로 現 지표면에서 2.65m 높이의 토단으로 隆起되어 있다(사진 2, 도면 2).

調査時 지표면에 露出되어 비교적 완전하게 원위치를 維持하고 있는 遺構는 一見 4種으로 구분되었는데 즉, 外部基壇石列, 外陳礎石列, 推定內部基壇石列, 內陣礎石列이었다.

그 중 위치이동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는 內陳礎石列은 동서 820cm 남북 365cm(3칸×1칸)로 中央御間이 365cm이고 左右夾間은 240cm이다. 礎石에 사용된 석재는 한변 100cm 내외 크기의 方形으로 한변 60cm 내외 크기의 外陳礎石에 비해 大形으로 이는 中層建物の 內陳高柱를 세웠던 것이거나 內部莊嚴을 위한 배려로 판단된다(사진 3).

추정 內部基壇石列은 동서 1,400cm, 남북 930cm의 長方形 平面으로 길이 240cm, 폭 70cm의 大形 石材를 使用하였는데 石材와 石材의 맞닿은 부분 즉, 석재의 양끝에는 길이 32cm 내외의 圓頭隱藏 홈이 패여 있어 石材의 水平이음에는 鐵製 圓頭隱藏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완전하게 남아 있는 南便石列과 西便石列의 石材의 크기 및 隱藏 홈으로 보아 東便方向의 基壇石列은 5매의 長臺石을, 南北方向의 基壇石列은 4매의 長臺石을 각각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4). 사용된 基壇石의 아랫부분은 2단으로 彫

3) 藤島亥治郎, 1969, 「朝鮮建築史論」

出하였고 윗부분은 4分圓法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는데 南便의 基壇石材 중 중앙에 놓인 石材의 앞면에는 가로 60cm, 세로 20cm로 長方形 홈을 1.5m 깊이로 파 놓았다(사진 5). 이 內部基壇石列에서 사방으로 180~200cm 떨어진 지점에는 12개의 外陳礎石이 위치하고 있고 外陳礎石과 內陳礎石과의 간격이 480cm로 비교적 넓은 점으로 판단할 때 이 기단석은 상부기둥을 받치기 위한 礎石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外陳礎石列은 동서 1,750cm, 남북 1,360cm로 內陳礎石에 비해 한번 60cm 내외 크기의 작은 方形礎石을 사용하였는데 높낮이상 內陳礎石보다 100cm 낮게 위치하고 있다. 南便礎石列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으나, 그 외는 교란이 심하여 西便에 3개, 東便에 1개, 北便에 2개가 원위치에 약간씩 이동된 채 남아 있다.

外部基壇의 平面形態는 서북부와 서남부에 노출되어 있는 基壇地臺石으로 판단할 때 金堂의 동·서편에는 돌출된 넓은 계단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즉, 南便 外部基壇地臺石은 동서 기준축선에서 1,020cm 떨어져 內外陳礎石列 및 內部基壇石列과 평행하게 놓여져 있으며 서편 外部基壇地臺石은 남북중심축선에서 1,020cm와 1,240cm 지점에 평행되게 2중으로 놓여져 있어 이들 基壇地臺石이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金堂址의 평면은 동서 2,060cm, 남북 2,060cm의 정방형 평면에 동편과 서편에 930cm 너비에 200cm만큼 바깥쪽으로 돌출된 특이한 형태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外部基壇石의 크기는 현재 확인이 가능한 基壇地臺石만으로 보아 길이 200cm, 폭 30cm의 긴 石材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基壇地臺石은 外陳礎石 상면에서 160cm만큼 낮게 위치하고 있어 架構式 基壇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基壇面石으로 보이는 石材는 확인되지 않았다.

金堂址 축조시의 사용척은 唐尺(0.98曲尺)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즉, 金堂址 內陳礎石정면의 길이는 820cm로 1척을 30.3cm로 볼 때 27.6척이므로 당시 28척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때 $27.6/28=0.98$ 척으로 환산되어 정확히 唐尺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內部基壇石列 역시 동서길이 1,400cm로 46.2曲尺이므로 47척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면 역시 0.98척으로 환산되어진다.

이상 金堂址의 規模 및 形態를 종합해 보면 동·서편에 넓은 계단을 갖춘 長方形 평면의 架構式 基壇 위에 정면 7칸 측면 5칸 규모의 건물로 外陳礎石과 內陳礎石 사이에는 內部基壇石列을 돌리고 그 내부에 다시 內陳礎石이 놓여진 특이한 구조를 보여준다. 正面 中央御間은 당시 사용척이었던 唐尺으로 12척, 第1夾間은 8척, 第2夾間(內部基壇石에 기둥이 놓였던 것으로 추정할 때) 8척, 第3夾間 8척으로 복원되어진다.

나. 塔址

金堂址의 동서중심축선에서 남으로 23m 떨어진 평행선과 金堂址 남북중심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동서로 각각 23m 떨어진 지점에는 否定形으로 융기된 2개소의 遺址가 남아 있어 金堂址에 대칭된 塔址로 추정된다.

이 중 西塔址는 최대지름 16m, 최소지름 9m의 타원형으로 남아 있으나 東塔址의 평면 형태가 10×8m의 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때 西塔址도 원래는 方形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사진 6). 塔址의 상면 중앙에는 한변 약 135cm의 1매의 正方形 石材에 직경 125cm, 높이 30cm, 깊이 20cm의 원형 축구멍이 뚫려 있다(도면 3-1). 이와 같은 연꽃무늬가 조각된 石材는 일반적으로 石燈의 下臺石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이곳에서는 塔址로 추정되는 곳의 안정된 지반층 위에 놓여져 있어 이 石材가 목탑의 心礎石으로 재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狼山 주변에서 木塔址의 遺址로 확인된 四天王寺址, 望德寺址, 狼山 西北便 廢寺址 등의 心礎石은 화려한 문양이 조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東塔址는 현재 평면 長方形, 단면 사다리꼴 形態로 융기되어 있을 뿐 별다른 遺構는 보이지 않고 다수의 기와조각만 흩어져 있다.

다. 石燈址

金堂址의 남북중심축선과 東西兩塔의 동서연장선이 만나는 지점 즉 金堂址 중심점에서 23m 떨어진 지점에는 石燈地臺石과 8각평면의 石燈屋蓋石이 남아 있다(사진 7, 도면 3-2). 石燈地臺石은 눈에 묻혀있어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屋蓋石은 일부 결실된 現狀態만으로 판단해 볼 때 직경 110cm, 높이 45cm로 8각의 마루와 귀꽃이 장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屋蓋石의 중앙에는 직경 16cm, 깊이 10cm의 축구멍이 뚫려 있고 축구멍 둘레에는 직경 35cm로 상륜부 받침이 1단으로 彫刻되어 있다.

上記한 西塔址 위에 놓여 있는 연꽃무늬의 석등하대석의 한변 길이가 135cm로 나타나고 있고 이 石燈의 地臺石도 거의 같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어 西塔址에 있는 연꽃무늬 下臺石이 여기에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라. 寺域 西便 幢竿支柱(寶物123號)

金堂址 南北中心軸線과 東西兩塔址 東西延長線이 만나는 지점에서 西로 140m 떨어진 지점에 높이 340cm의 幢竿支柱가 70cm 간격으로 서 있다. 이 당간지주는 현재 2柱 中 南便柱는 완전하나 北便柱는 상부가 결실되었다(사진 8, 도면 4).

南便柱의 竿溝는 현지표면에서 10cm, 155cm, 300cm의 높이에 15×18cm 크기로 3개가 뚫려 있고, 北便柱는 상·중 2개의 竿溝만이 뚫려있다. 南便柱는 竿溝가 완전 관통되게 뚫려 있고 北便柱는 竿溝가 반쯤만 뚫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竿固定帶를 南에서 北으로 꿰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北便柱의 上部 竿溝의 윗부분은 결실되었고 南便柱는 완전하게 남아 있는데 南便柱는 정다듬상태가 고운 반면 北便柱는 支柱 下部의 정다듬상태가 거칠게 처리되어 있다. 南北 2柱 사이에는 정다듬한 石材 1點이 일부 露出되어 있는데 下部地臺石인지 北便支柱 上部 缺失部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마. 寺域 北便 幢竿支柱(寶物910號)

金堂址 중심점에서 북편 약 400m 떨어진 地點에는 높이 143cm의 規模는 작으나 장식이 화려한 幢竿支柱가 서있다(사진 9, 도면 5). 당간지주는 2柱가 65cm 간격을 두고 완전하게 原狀態를 維持하고 마주 서 있는데 支柱의 안쪽 上部에는 幢竿을 고정시키기 위한 竿溝가 15×22cm의 깊이로 뚫려 있고, 지주의 바깥면 상부 약 58cm의 정방형 구간내에는 직경 48cm의 씨방을 갖춘 8엽 홀잎의 연꽃무늬가 陽刻되어 있다. 下部는 埋沒되어 基壇部는 確認할 수 없는 狀態이다.

바. 石槽(寶物64號)

寺刹의 급수용으로 만들어진 容器로 추정되는 것으로 1매의 대형 화강암 석재를 244cm, 너비 90cm, 깊이 62cm 되게 長方形으로 파내었는데 별다른 장식이나 문양은 보이지 않으나 북측벽 입술부의 10cm 폭만큼은 두툼하게 처리하였고, 水槽의 側壁바닥 가장자리에는 지름 7cm 내외의 배수용 구멍이 한 개 뚫려 있다(사진 10, 도면 6).

사. 其他 石材

寺域內로 추정되는 金堂址 주변에는 140여개의 礎石 및 基壇地臺石 등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礎石은 圓形柱座礎石과 方形礎石이 대부분이고 일부 고목이 礎石도 보인다. 이 중 方形礎石 일부는 石材가 완전 노출되어 있지 않아 柱座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現 노출부가 方形인 것은 方形礎石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성격 파악이 곤란한 석재는 異形石材로 분류하였다.

1) 圓形柱座礎石(도면 7)

총 57점이 대부분 직경 70cm 내외 크기의 方形石材에 직경 60cm 내외의 圓形柱座가 조각되어 있다. 이 중 柱座가 2단으로 조각된 礎石은 柱座의 높이가 낮은 반면 1단의 柱座를 갖춘 것은 柱座의 높이가 비교적 높게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方形礎石(도면 7)

총 73점이 조사되었다. 이 중 대부분은 金堂址 上部에 노출되어 있는 方形礎石처럼 별도의 柱座를 만들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일부 柱座가 조각된 礎石도 확인되었다.

3) 고매이 礎石(도면 7)

金堂址 동편 약 20m 가량 떨어진 논둑에서 1점이 조사되었다. 직경 30cm의 圓形柱座에 고매이가 이어져 있다.

4) 其他 石材(도면 8)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재는 모두 7점으로 이 중 석재A(도면 8)는 金堂址 前面에 노출되어 있는데 한변 84cm의 正方形 石材에 한변 60cm, 높이 10cm만큼 단을 두고 段의 側壁에는 眼象을 조각해 놓았으며 석재 중앙에는 직경 12cm, 깊이 17cm의 축구멍이 뚫려 있다.

4. 採集遺物

가. 연꽃무늬 막새(사진 11)

직경 3cm 가량의 작은 씨방을 중심으로 주위에 잎끝이 갈라진 안잎을 배치하였고 바깥잎으로 4장의 연꽃무늬를 넓게 배치하고 그 내에 가는잎 계통의 자엽이 장식되었다.

나. 연꽃무늬 막새(사진 12)

국화잎계의 가는 꽃잎을 씨방주위로 배치하고 각 잎의 둘레에는 가는 둘레선을 장식하였다. 꽃잎의 볼륨에 비해 씨방과 테두리의 볼륨이 강한 편이다.

5. 맺음말

普門寺址에 대한 이상과 같은 조사내용은 狼山 주변에 위치해 있는 四天王寺址, 望德寺址와 많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금까지 조사된 이들 3寺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普門寺址에 대한 伽藍配置를 종합해보면 7×5칸의 금당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木塔을 23m 간격으로 배치하고 金堂北便에는 講堂이 南便에는 中門과 南門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확한 講堂址와 門址의 확인은 現狀으로는 불가능하였으나 日人 藤島亥治朗의 조사에 의하면 1928년에는 講堂址, 門址, 廻廊址의 일부 초석이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⁴⁾되어 있으며, 현재는 원위치를 이탈하고는 있으나 각 건물이 위치해 있었다고 판단되는 곳에 특히 많은 초석이 산재해 있어 해당 건물과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四天王寺址⁵⁾의 金堂址는 정면 7칸(약 18m), 측면 3칸(약 12m)으로 外陳礎石은 사방 75cm로 治石된 方形에 직경 55cm의 圓形柱座가 새겨진 것이고 內陳礎石은 外陳礎石에 비해 작은 圓形의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金堂址 중심부에는 200×100cm 크기의 長方形 臺石이 2개 나란히 놓여 있어 佛臺石으로 추정되어진다. 兩塔址는 높이 130cm의 土壇 위에 3칸×3칸의 목탑으로 사용된 초석은 사방 50cm 크기의 방형에 方形柱座를 새겼고 塔址의 중앙에는 한 변 118cm 크기의 方形心礎石이 놓여 있고 心礎石 중앙에는 한 변 30cm의 方形舍利孔이 7cm 깊이로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 다시 한 변 24cm의 方形孔이 18cm 깊이로 뚫려 있어 舍利孔이 2重으로 되어 있다.

望德寺⁶⁾의 金堂址는 교란이 심한 편이나 현재 남아 있는 礎石과 土壇으로 보아 정면 5칸(약 20m)×측면 3칸(약 8m)으로 복원되어지며, 兩塔址는 중심간 거리 약 34m로 3칸×3칸이다. 基壇址는 1변 약 800cm이고 계단지는 남편이 160cm, 동편이 200cm이다. 사용된 초석은 80cm 내외 크기의 방형으로 70cm 크기의 方形柱座가 새겨진 것이다. 塔址 중앙에는 폭 130cm의 正方形 2중 舍利孔이 25cm 깊이로 뚫려 있다.

이상 3寺址의 공통점을 요약해보면, 寺域으로 추정되는 면적이 비슷하고 金堂址의 동서에 木塔을 배치하였으며 金堂址는 가구식 기단 위에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4) 藤島亥治郎, 앞의책

5) 東國大慶州캠퍼스 博物館, 앞의책, 圖面參照.

6) 東國大慶州캠퍼스 博物館, 앞의책, 圖面參照.

이 3寺址에 대한 문헌기록상 나타나 있는 축조년대는 四天王寺와 望德寺는 분명히 그 절 대년대가 기록되어 있으나 普門寺址의 창건년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四天王寺는 新羅 文武王 19년(679)에 明朗法師의 발원으로 세워진 사찰로 기록⁷⁾되어 있고 망덕사는 新羅 神文王 5년(685)에 세운 사찰⁸⁾로 기록되어 있다.

普門寺址에 대한 창건년대에 관한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普門寺와 관련된 유일한 문헌기록⁹⁾으로 新羅 景文王 十一年(871年) 八月 十二日에 황룡사 9층목탑을重修하면서 埋納하였던 황룡사 刹柱本記에 普門寺 上座僧 隱田이 道監典으로 大塔佛寺에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이상 3寺址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먼저 사천왕사가 창건되고 뒤이어 望德寺址가 창건되었으며, 보문사는 적어도 2세기 뒤인 871년에는 사세가 번창하여 황룡사 목탑의 大塔佛寺에 道監典 15명 중 6번째로 普門寺 上座僧 隱典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6. 調査所見

普門寺址의 사역내에는 북편 연꽃무늬 당간지주를 비롯하여 모두 3개의 유물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石材가 원위치를 이탈해 있다고는 하나 통일신라시대의 사지 중에서 가장 많은 석재가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는 중요한 유적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상은 지정된 보물 주위에만 낮은 인제책을 설치하여 보존하고 있을 뿐 金堂址를 비롯한 중요유구들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없이 논 가운데 방치되어 있어 경작을 비롯한 기타 사유 등으로 유구의 교란과 훼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日人 藤島亥治朗의 보고내용¹⁰⁾과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藤島亥治朗은 金堂址 북편에 2개의 융기된 흙무더기가 있어 이를 종루지와 경루지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상은 1개의 융기된 흙무더기가 있어 1개는 이미 결실된 상태이고, 金堂址 남편에서 확인되었다는 중문지의 흔적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사역 내에 흩어져 있는 초석들도 당시는 다수가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강당지, 회랑지 등의 추론이 가능하여 가람의 배치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으나 현재는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초석의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7)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本記 卷七 文武王十九年.

8) 金富軾, 앞의책, 新羅本記 卷八 神文王五年.

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1」.

10) 藤島亥治郎, 앞의책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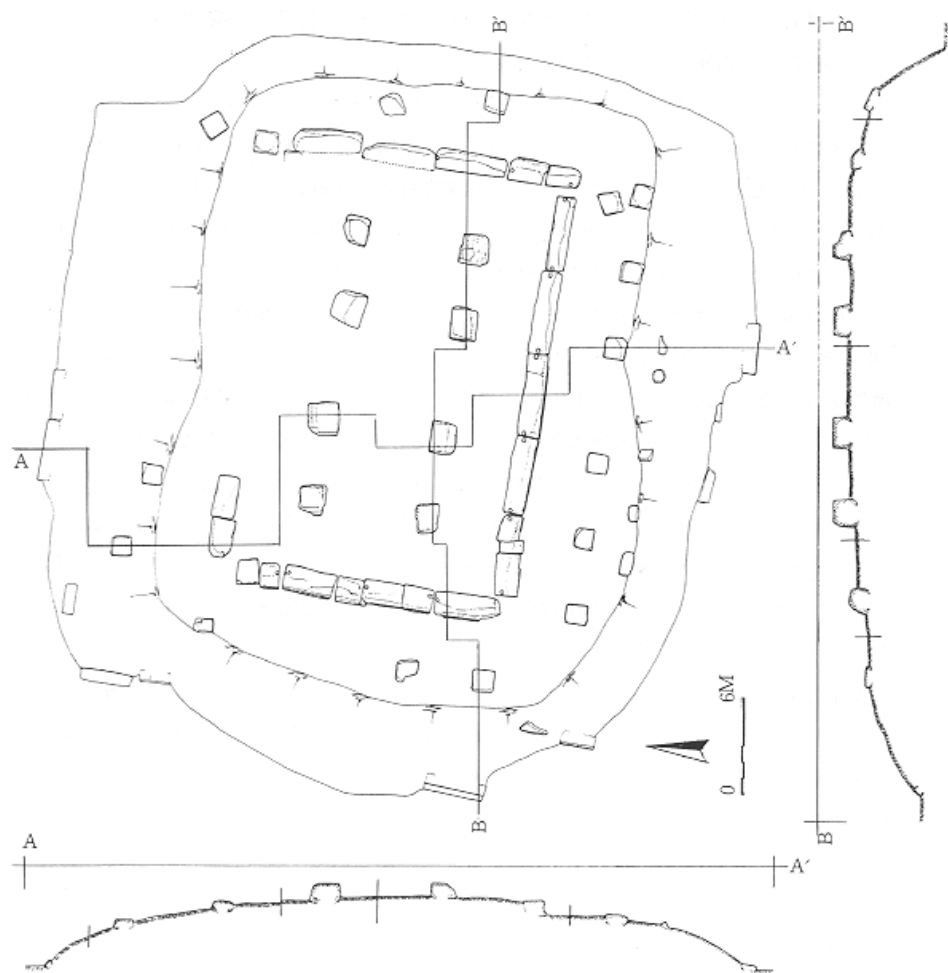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짧은 세월 속에서도 유적의 현상이 많이 변화되어 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유적지의 현상 보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조사된 普門寺址의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물로 지정된 개별 유물만 인제책을 설치 보존하는 형식적인 보존대책에서 벗어나 사역전체를 사적으로 지정, 보존하고 빠른 시일내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유구 성격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유적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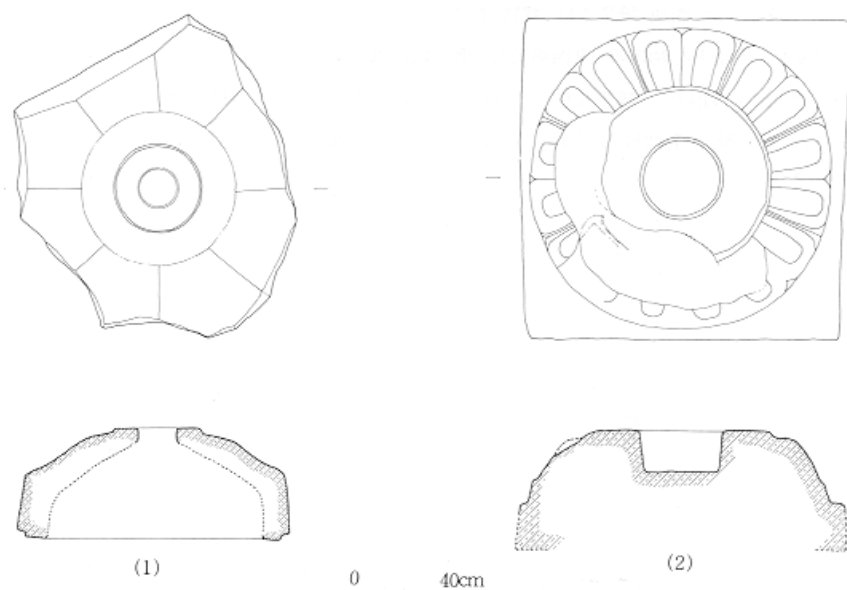
아무쪼록 이 현황보고서에 실린 조사내용이 보문사지 현상보존에 다소의 보탬이 되고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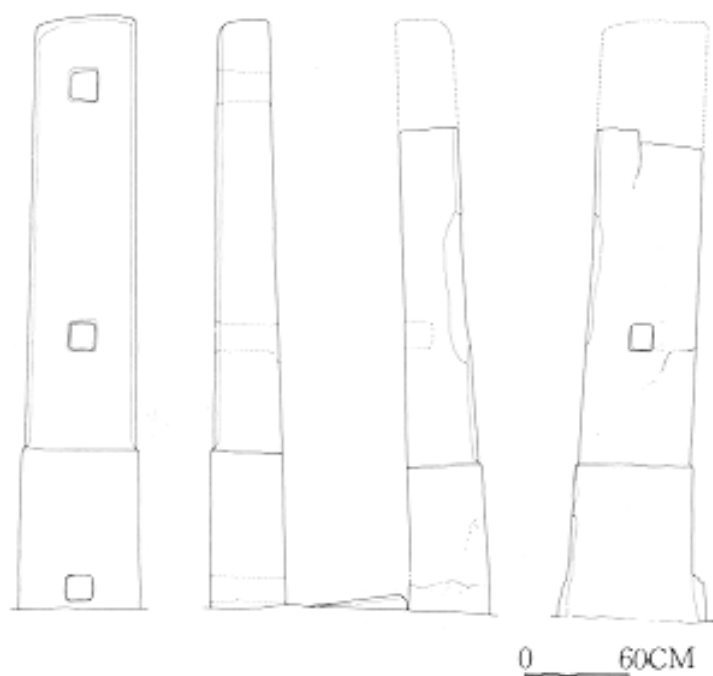
도면 1. 보문사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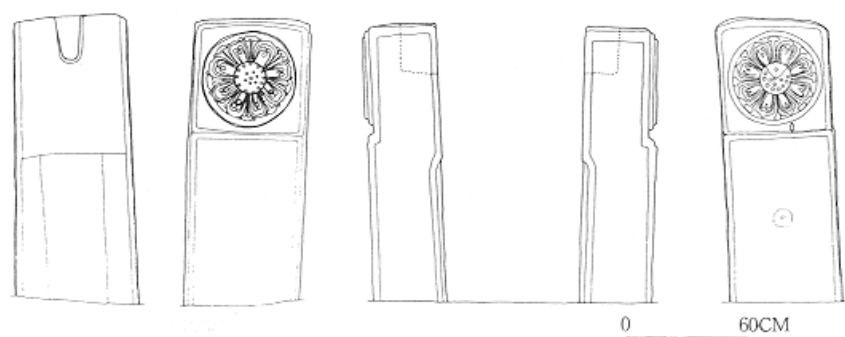
도면 2. 추정금당지 평면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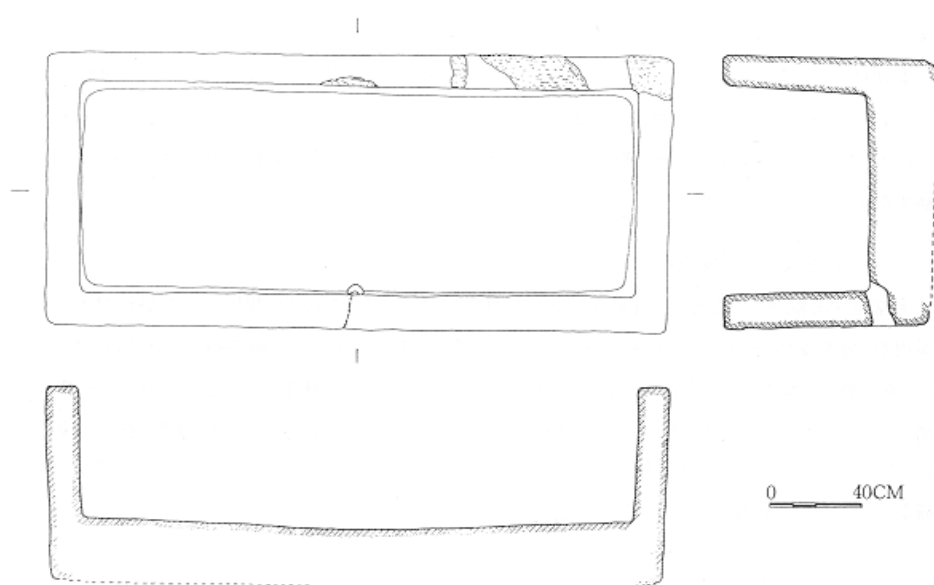
도면 3. 석등옥개석 및 석등하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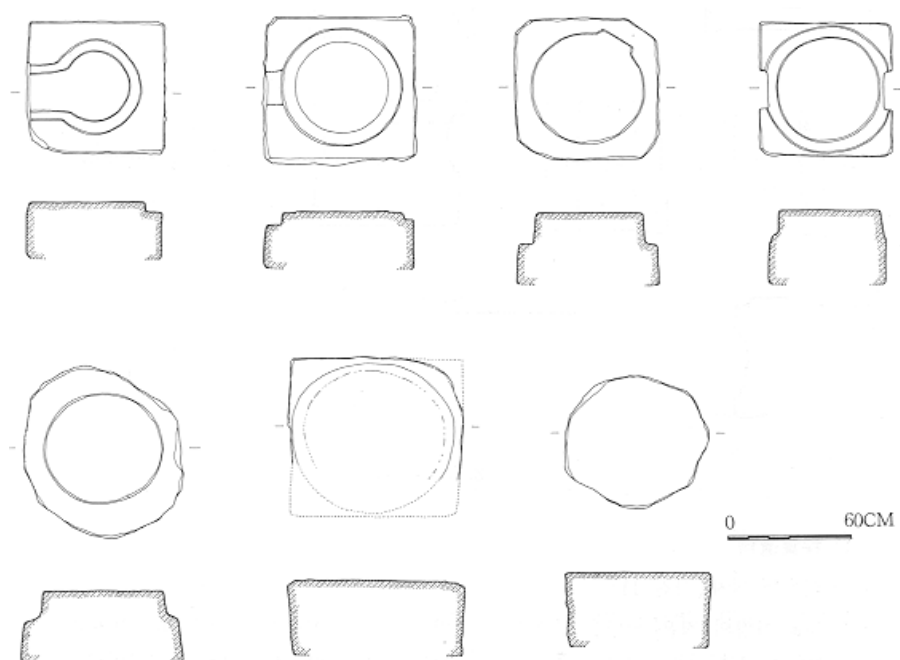
도면 4. 사역 서편 당간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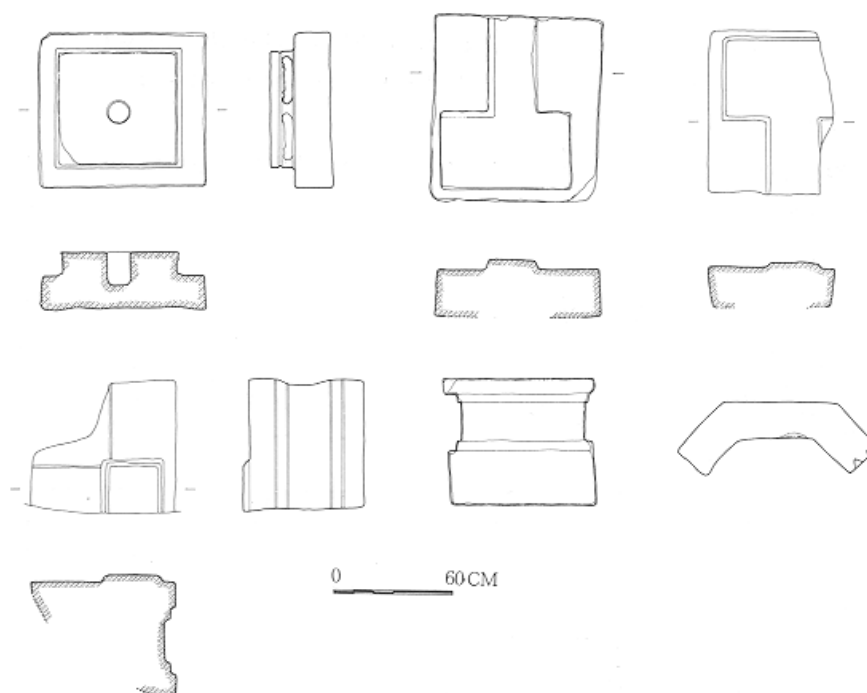
도면 5. 사역 북편 당간지주



도면 6. 석조 평면 및 단면도



도면 7. 초석



도면 8. 기타석재



사진 1. 보문사지 전경



사진 2. 추정 금당지 전경



사진 3. 추정금당지내 초석 노출 상태



사진 4. 추정금당지내 석축 이음 상태



사진 5. 추정금당지 전면 석재 노출 상태



사진 6. 서탑지 노출 상태



사진 7. 석등지 노출 상태



사진 8. 사역 서편 당간지주



사진 9. 사역 북편 당간지주



사진 10. 석조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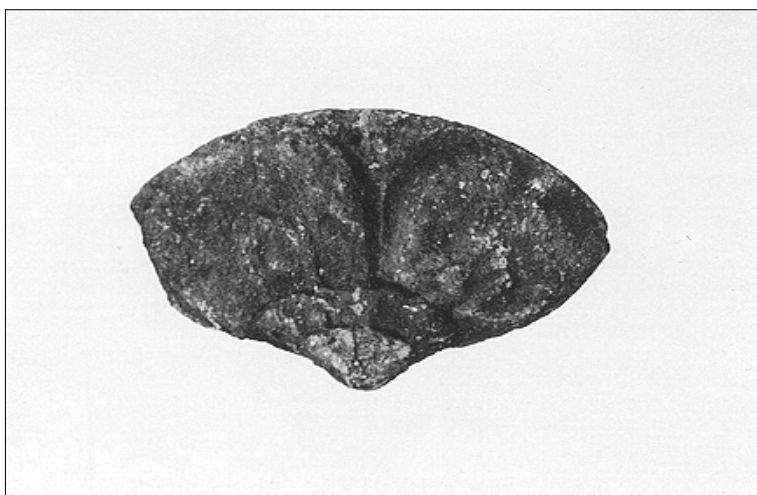


사진 11. 연꽃무늬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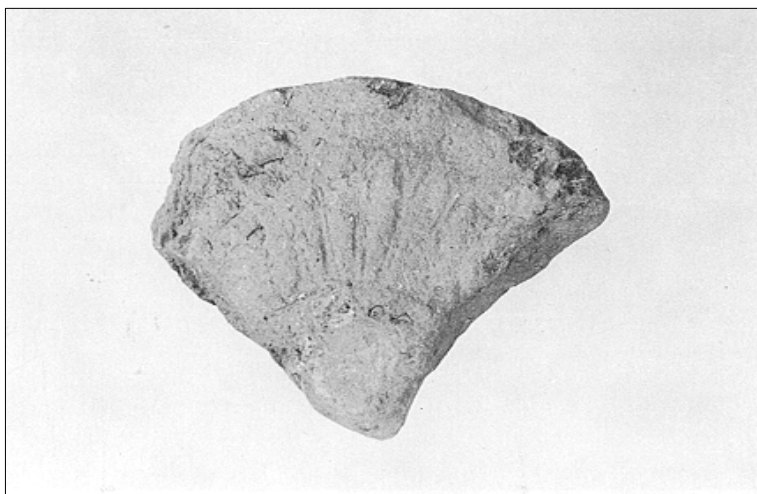


사진 12. 연꽃무늬막새